

아동 탄력성의 발달적 변화가 사회적 유능성에 주는 영향*

김 수 정¹⁾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곽 금 주²⁾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1학년 시기부터 4학년에 이르기까지 총 4년간 아동 탄력성에서 발달적 변화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발달적 변화가 4학년 시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만 7세 아동과 아동의 어머니들로 4년 간 반복적으로 측정한 변인에 모두 참여한 대상들은 약 300여명의 아동과 어머니들이다. 아동 탄력성의 발달적 변화와 이런 발달적 변화가 사회적 유능성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1학년 아동 탄력성에서 개인차를 보였다. 4년간 아동 탄력성에서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런 변화율에서 개인차도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4년간 탄력성의 발달적 변화가 사회적 유능성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학년 때 아동의 탄력성은 4학년 때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영역 중 사교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그리고 인기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나, 대인적응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4년간 아동탄력성의 변화 속도는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영역 중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초등 1학년 시기부터 아동들은 탄력성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런 차이가 이후 4학년 시기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학년 아동의 탄력성이 이후 사회적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주요어 : 아동 탄력성, 사회적 유능성, 어머니 탄력성, 잠재성장모형

* 본 논문은 2015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3056).

본 논문은 2016년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논문을 확장한 것임.

1)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E-mail: sjkim505350@daum.net)

2)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I. 서 론

사회적 유능성은 아동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며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Raver & Zigler, 1997). 특히 아동기는 사회적 유능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 형성되는 사회적 유능성은 이후 청년기 사회적 적응문제에도 일관되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Crick, 1996; Kupersmidt & Coie, 1990; Parker & Asher, 1987), 아동 발달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Katz & McClellan, 1997; Raver & Zigler, 1997).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과학에서 가장 빈번하게 정의되는 구성개념 중의 하나로, 사회적 행동의 포괄적인 영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연령과 성별에 적절한 발달 과업을 성취하는 능력으로 그리고 학업이나 또래 수용 등의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유지하려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된다(Burt, Obradovic, Long, & Masten, 2008).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아동은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며 이후 청소년 및 성인 기에도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Waters & Sroufe, 1983) 반면에 사회적 유능성이 부족한 아동들은 이후 발달과정에서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 직업성취 등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다(Murray & Greenberg, 2006). 이와 같이 사회적 유능성은 개인의 사회적 수행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한 판단을 반영하는 평가적 용어으로써 광범위하게는 적응행동 속에 포

함될 수 있다.

Waters와 Sroufe(1983)에 따르면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지식이나 기술과 같은 적응 능력을 포함하는 의미로 가정, 학교, 또래관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여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 및 적응 능력이다(Masten, 2001).

Masten과 Coatsworth(1998)는 사회적 유능성이 현재의 사회적 적응과 미래의 적응을 예측한다고 하면서 사회적 유능성의 성취기준을 탄력성 발달로 평가하였다. 탄력성이란 외적/내적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고 넉넉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Klohn, 1996),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능력이나 특성이 아니라 평범함 사람들이 역경을 극복해 가는 보통의 적응기제이다(Masten, 2001). 이런 맥락에서 탄력성은 최근 심리학이나 아동 교육 연구 등의 여러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Kim,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광범위한 개념인 사회적 유능성과 최근 적응 개념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탄력성 간 관련성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Garmezy(1991)는 탄력성의 성과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명백한 유능성을 의미하며, 그러한 유능성으로 인해 개인은 사회생활에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일부 연구자들은 개인의 정상적인 발달적 결과와 성공적인 적응의 결과를 심리 사회적 유능성 개념으로 추론하고자 하였다(Garmezy,

Masten, & Tellegan, 1984; Masten & Coatsworth, 1998; Masten Hubbard, Gest, Tellegan, Garmezy, & Ramirez, 1999; Rutter, 1985).

사회적 유능성이 개인을 탄력적으로 이끄는 요인인지 또는 탄력성의 발달적 결과로 사회적 유능성이 획득되는 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탄력성이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적응하기 위해 개인의 내적·외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유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도남희, 2009).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일부 연구자들의 입장에 근거하여(Masten & Coatsworth, 1998; Masten et al., 1999; Rutter, 1985), 사회적 유능성을 탄력성의 발달적 결과로 보고, 학령기 아동의 탄력성 발달이 사회적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들어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가장 요구되는 것 중 하나가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탄력성은 3가지 관점에서 연구되었는데, 첫째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는 탄력성을 개인 성격의 한 유형으로 보고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하면서(Block & Kremen, 1996), 역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탄력적인 집단을 규명하여 다른 집단과 비교하는 개인 중심의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는 탄력성을 역동적 특성으로 보고, 위험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라 발달해 가는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보았다(Garmezy, 1993;

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Masten, 2001; Rutter, 1985). 이 입장에서는 위협이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전제되지 않는 탄력성은 다른 개념으로 여기며(Luthar et al., 2000), 탄력성의 발달을 돕거나 저해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즉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켜주는 보호요인 및 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변인 중심의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셋째로 탄력성을 포괄적 개념으로 본 발달적 맥락주의 관점 또는 포괄적 관점에서는 탄력성이 개인적 능력을 의미하지만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역동적이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환경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Dyer & McGuinness, 1996). 즉 탄력성은 성격특질이면서도 환경적 맥락에 따라 증진되거나 쇠퇴할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닌 특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중대한 위험 수준의 유무를 떠나서 탄력성을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위협적이고 병리적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거나 치료하는 접근으로부터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예방적 차원으로 연구의 접근 방법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탄력성의 초기 연구에서는 자아를 중시하여 개인적인 성향이나 특성을 살펴보다가 이후 탄력성 연구가 진행되면서 탄력성의 특성을 좀 더 확장하고자 역동적인 특성을 포함하여 연구하였고, 현재는 이 두 관점을 통합한 포괄적 개념의 발달적 맥락주의 관점이 강조되면서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탄력성의 발달과 개념 정립을 위

한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발달적 맥락주의 관점에서는 탄력성이 역경이나 심각한 위협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니라 발달과정에서 잠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아동 및 청소년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Brooks & Goldstein, 2001)는 것이다. 현대 사회적 특성으로 볼 때 누구나 역경에 처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취약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평범한 가정에서도 높은 수위의 위험요인이 야기될 수 있다(Smith, 2006). 따라서 모든 아동들은 잠재적으로 역경에 처할 수 있는 취약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아동들의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예방적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탄력성에 대한 종단 연구들(Kaplan, 1999; Masten, et al., 1999; Werner, 1995)에서는 개인의 탄력성이나 취약성이 극심한 스트레스 동안뿐 아니라 전 생애 동안에 나타나며 한 시점에서 탄력적인 아동이 다른 시점에서는 탄력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탄력성이 변화가능하다는 점에서 탄력성에 대한 개인 간 차이 뿐 아니라 개인 내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탐색하는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탄력성을 포함한 아동의 심리적 특성들은 어머니 양육행동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Levenson, 1973). Brooks (2006)에 따르면 아동이 매일 경험하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아동의 행동과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Kumpfer와 Alvarado (2003)도 아동의 탄력성을 발달시키는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도 기본적으로 양육

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Parke & Buriel, 1998; Parke & Ladd, 1992). Mitchell과 Annette(1999)에 의하면 어머니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에 정적 관련이 있었다. 가령, 어머니의 사회적 유능성이 적절하지 못하면 유아는 그러한 어머니의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모방하게 되므로 부적절한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일상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이는 행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또래 상호작용 및 사회적 유능성에 중요한 기술을 획득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Parke & Buriel, 1998).

이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및 탄력성은 어머니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양육 행동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부모의 낙관성은 자녀의 낙관성에 많은 영향을 주며 (Seligman, 1995),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완벽주의 간에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김문정, 정윤경, 2012). 그렇다면 어머니의 탄력성도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을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탄력성이 사회적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학령기가 시작되는 초등 1학년 시기는 부모, 교사, 그리고 또래 등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인지·정서적으로도 이전보다 좀 더 안정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적응과 관련된 여러 행동 특성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적응과 관련하여 아동의 탄

력성 발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탄력성의 발달 수준과 발달적 변화가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발달적 주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초등 1학년에서 아동 말기로 전이되는 시점인 초등 4학년에 이르기까지 아동 탄력성의 발달적 변화를 알아보고, 이런 발달적 변화에서 아동마다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 탄력성과 사회적 유능성에 어머니 탄력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론을 통해 어머니 탄력성을 학년별로 통제하고 아동 탄력성의 발달적 변화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각 하위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연구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 시기부터 초등 4학년에 이르기까지 탄력성의 발달적 변화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둘째, 초등 1학년에서 4학년에 이르기까지 탄력성의 발달적 변화가 4학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2012년 중점 연구소 과제인 [빈곤이 취약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 연구]에

서 실행한 중단 연구 자료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참여 대상은 2009년도에 초등 일학년에 입학한 아동과 아동의 어머니들로, 초등 1학년 시기인 2009년에 약 400명의 아동과 아동의 어머니들이 참여하여 초등 4학년이 되는 시기인 2012년까지 4년 동안 해마다 1회씩, 총 4회 분석을 위해 필요한 변인에 모두 응답한 대상들은 약 300 여명의 아동들과 아동의 어머니들이다. 이중, 남아가 47% 여아가 53%이며, 모의 학력은 중졸이 3%, 고졸이 17%, 전문대졸이 19%, 대졸이 52%, 대학원 이상 졸업이 9%이다. 부의 학력은 중졸이 3%, 고졸이 14%, 전문대졸이 16%, 대졸이 49%, 대학원 이상 졸업이 19%이다. 가정의 평균소득은 약 402만원이다.

2. 측정도구

아동용 측정도구

사회적 유능성. 아동의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적, 심리적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현(2005)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5점 척도로 평가된다. 한미현의 연구에서 사용된 각 하위 영역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사교성이 .86, 대인적응성이 .86, 사회참여도가 .91, 주도성이 .90, 인기가 .91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유능성의 신뢰도 계수는 .97이며, 각 하위 영역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사교성이 .88, 대인적응성 .87, 사회참여도 .91, 주도성이 .92, 인기가 .92이다.

탄력성. 적응적 발달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소영과 이양희(2007)가 타당화 시킨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초등학교 4-6학년생들의 자기보고식으로 구성된 총 30 문항으로 5점 척도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이 초등 1학년부터 3학년 시기까지는 자기보고식 보고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문항들을 어머니 보고로 측정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이 초등 4학년이 되었을 때는 아동의 자기보고로 탄력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탄력성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초등 1학년 때 .91, 2학년 때 .91, 3학년 .92, 4학년 때 .90이다.

부모용 측정도구

어머니의 탄력성(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Connor와 Davidson(2003)이 성인의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성인들의 자기보고식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총 25문항이다. 사용된 어머니의 탄력성 문항 신뢰도 계수는 아동이 초등 1학년 때(2009년) .92, 2학년 때(2010년) .93, 3학년 때(2011년) .90, 4학년(2012년) .90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의 평균 산출 및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였고, 탄력성의 발달적 변화는 AMOS 19.0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을 통해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반

복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인의 변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모형 중 하나이다.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시간 변화에 따른 평균에서의 변화 뿐 아니라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김수정, 광금주, 2014, 아동기 기질의 발달적 변화가 지능발달에 주는 영향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아동 탄력성에 대한 발달적 변화를 확인하고 학년별로 부모의 탄력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4년간 아동 탄력성의 발달적 변화가 초등 4학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각 하위영역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로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TLI와 CFI가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며,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 이하이면 보통 수준을 의미한다(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 자료의 특성상 반복측정 시 발생한 결측치에 대해서는 각 변인들의 결측치가 무작위로 발생한다는(missing at random, MAR) 가정 하에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아동 탄력성의 발달적 변화를 알아보기 전에 변인들의 평균값과 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표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아동탄력성1(2009)		141	2.40	4.76	3.61	.47
아동탄력성2(2010)		187	2.10	4.82	3.74	.42
아동탄력성3(2011)		134	2.00	4.90	3.80	.43
아동탄력성4(2012)		141	2.31	5.00	3.82	.39
사회적 유능성 (2012)	사교성	143	1.80	5.00	3.53	.77
	대인적응성	143	1.50	5.00	3.58	.70
	사회참여도	143	1.20	5.00	4.03	.75
	주도성	143	1.00	5.00	3.19	.87
	인기도	143	1.00	5.00	3.19	.87
부모탄력성1(2009)		146	1.88	4.68	3.50	.51
부모탄력성2(2010)		187	1.12	4.88	3.48	.54
부모탄력성3(2011)		134	2.44	4.80	3.53	.47
부모탄력성4(2012)		141	2.40	4.76	3.61	.47

표 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사회적 유능성													
1. 사교성	1												
2. 대인적응성	.72**	1											
3. 사회참여도	.73**	.66**	1										
4. 주도성	.71**	.63**	.78**	1									
5. 인기도	.72**	.65**	.68**	.80**	1								
6. 부모탄력성1	.16	.13	.13	.10	.12	1							
7. 부모탄력성2	.19*	.12	.21*	.16	.11	.72**	1						
8. 부모탄력성3	.12	.09	.11	.14	.13	.56**	.62**	1					
9. 부모탄력성4	.11	-.01	.09	.09	.09	.67**	.70**	.70**	1				
10. 아동탄력성1	.22*	.07	.24*	.31**	.26*	.58**	.48**	.31**	.37**	1			
11. 아동탄력성2	.23**	.17*	.28**	.32**	.23**	.47**	.60**	.35**	.37**	.69**	1		
12. 아동탄력성3	.23*	.19*	.28**	.36**	.24**	.48**	.55**	.48**	.49**	.58**	.73**	1	
13. 아동탄력성4	.19*	.12	.21*	.23**	.17*	.33**	.43**	.22*	.49**	.45**	.56**	.58**	1

* $p < .05$. ** $p < .01$.

변인 간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수를 산출하여 평균값과 같이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부모탄력성과 아동탄력성 간 상관을 살펴보면, 아동이 1학년 때 부모탄력성1은 1학년 아동의 탄력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을 뿐 아니라($r = .58, p < .01$), 2학년, 3학년, 4학년 때의 아동 탄력성과도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47, r = .49, r = .33$). 아동이 2학년, 3학년, 4학년 되는 시기의 부모탄력성도 학년별 아동의 탄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표 2 참조).

그러나 부모 탄력성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부분적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2학년 때 부모 탄력성만이 4학년 때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영역 중, 사교성($r = .19$)과 사회참여도($r = .21$)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 탄력성과 사회적 유능성 간 상관을 보면, 1학년 아동의 탄력성은 $p < .05$ 수준에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영역 중, 사교성($r = .22$), 사회참여도($r = .24$), 인기도($r = .26$)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p < .01$ 수준에서 주도성($r = .3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2학년 때 아동 탄력성은 사회적 유능성 영역 중, 사교성($r = .23$), 사회참여도($r = .28$), 주도성($r = .32$), 인기도($r = .23$)와 $p < .01$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대인적응성($r = .17$)과는 $p < .05$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3학년 때 아동 탄력성은 $p < .01$ 수준에서 4학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영역 중, 사회참여도($r = .28$), 주도성($r = .36$), 인기도($r = .24$)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교성($r =$

$.23$)과 대인적응성($r = .19$)과는 $p < .05$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4학년 때 아동 탄력성은 4학년 사회적 유능성 중, 사교성($r = .19$), 사회참여도($r = .21$), 인기도($r = .17$)에서 $p < .05$ 수준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주도성($r = .23$)과는 $p < .01$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2. 아동의 탄력성 발달적 변화 모형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발달적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잠재성장모형의 무조건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chi^2=11.49(df=8, p=.000)$, CFI=.98, TLI=.99, RMSEA=.05로 양호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초등 1학년부터 4학년 시기 동안 아동 탄력성의 초기값의 평균은 3.70($p < .001$)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초등 1학년 시기에서 아동 탄력성의 평균값은 0보다 크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리고 초등 1학년인 만 7세 아동 탄력성의 초기 값에서 변량이 .11($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이 시기 아동 탄력성에서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탄력성의 변화율 평균은 .13($p <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아동탄력성의 변화율 평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완만한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탄력성의 변화율의 변량도 .04($p <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아동탄력성 변화율에서 아동마다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표 3. 아동탄력성의 무조건 변화모형 적합도

변화모형	χ^2	df	TLI	CFI	RMSEA
선형 변화모형	11.49	8	.98	.99	.05

표 4. 아동탄력성의 무조건 변화모형에 대한 결과

변인	초기값		기울기(변화율)		공변량
	평균	변량	평균	변량	
아동 탄력성	3.70***	.11***	.13***	.04*	-.01

* $p < .05$. *** $p < .001$.

의미한다. 즉 4년 동안 아동 탄력성에서의 변화 속도가 아동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아동탄력성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변량의 값은 -.01로 부적 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아동 탄력성의 발달적 변화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주는 영향

아동 탄력성에 대한 무조건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이 대부분 수용할만한 범위에 있으며, 모형의 적합도도 좋은 편이고, 개인 간 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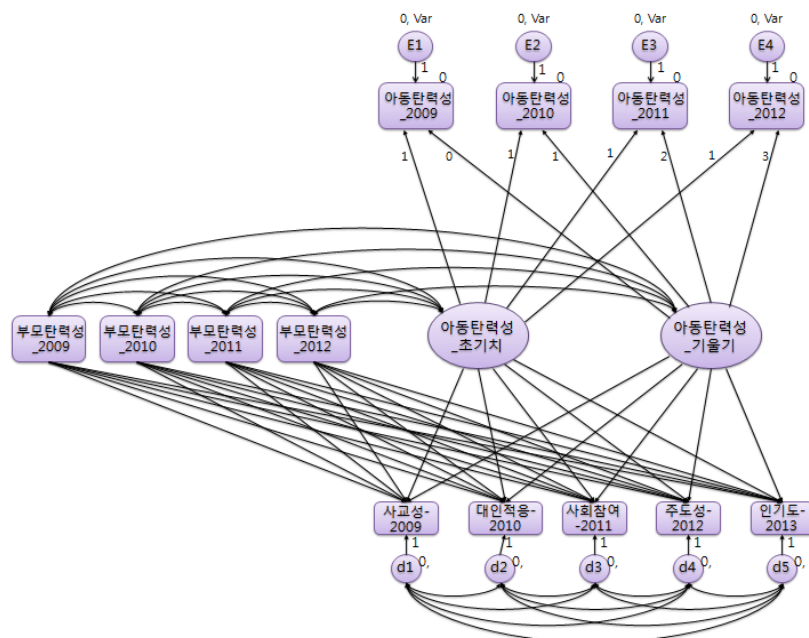


그림 1. 아동탄력성의 발달적 변화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표 5. 아동탄력성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변화모형	χ^2	df	TLI	CFI	RMSEA
선형 변화모형	61.29	26	.90	.97	.08

값과 변화율의 변량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조건부 모형으로 이행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초등 1학년 시기부터 4학년 시기까지의 학년별 부모탄력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탄력성의 초기 값과 기울기가 초등 4학년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영역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의 적합도는 표 5에서 보듯이 $\chi^2 = 61.291(df = 26, p < .001)$, TLI = .90, CFI = .97, RMSEA = .08로 대체로 양호하였다. 초등 1학년 시기부터 4학년 시기까지 아동의 탄력성 기울기(4년간 탄력성의 변화 속도)를 독립

변수로, 각 학년별 부모탄력성 변수를 통제변수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다.

표 6을 보면, 아동 탄력성의 초기값은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영역인 사교성에 유의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beta = .32, p < .05$). 이를 통해 초등1학년 때 아동 탄력성이 초등 4학년 때 사교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학년 시기 아동 탄력성은 4학년 때 아동의 사회참여도($\beta = .40$)와 인기도($\beta = .40$)에 각각 $p < .01$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초등 일학년 때 아동의 탄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초등 4학년 때 사회참여정도와 또래 및 성인들에게 인기

표 6. 아동 탄력성의 발달적 변화가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유의도
사교성 <— 아동탄력성초기값	.73*	.32	.32	.024
대인적응성 <— 아동탄력성초기값	.43	.35	.20	.228
사회참여도 <— 아동탄력성초기값	.91**	.32	.40	.004
주도성 <— 아동탄력성초기값	1.41***	.37	.54	.001
인기도 <— 아동탄력성초기값	1.06**	.37	.40	.004
사교성 <— 아동탄력성기울기	1.91	3.57	.18	.59
대인적응성 <— 아동탄력성기울기	5.15	4.91	.20	.30
사회참여도 <— 아동탄력성기울기	.33	3.49	.03	.93
주도성 <— 아동탄력성기울기	.19	4.13	.02	.96
인기도 <— 아동탄력성기울기	.66	4.04	.05	.87

* $p < .05$. ** $p < .01$.

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학년 때 아동의 탄력성은 4학년 때 주도성에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beta = .54, p < .001$). 이는 초등 1학년 경 아동의 탄력성이 높을수록 4학년 경 아동의 주도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1학년 때 아동의 탄력성은 4학년 때 대인 적응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초등 1학년부터 4학년에 이르기까지 4년 동안 아동의 탄력성의 발달 기울기(발달속도)는 4학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영역 중 어떤 곳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4년간 아동의 탄력성이 완만한 속도로 증가를 보였어도 그러한 변화 속도가 4학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 1학년 시기부터 초등 4학년에 이르기까지 총 4년간 아동 탄력성에 대한 발달적 변화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 가를 알아보고 이러한 탄력성의 발달적 변화에 어머니의 탄력성이 주는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아동 탄력성의 변화가 4학년 때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어떤 연계성을 보이는가를 알아 보았다.

첫째로, 아동 탄력성의 발달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시기 동안 아동 탄력성의 초기값의 평균은 3.70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다. 탄력성 척도가 5점 척도인 것을 감안해본다면 초

등 1학년 아동의 탄력성은 중간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그리고 이러한 탄력성은 아동마다 차이를 보였다. 즉 모든 아동들이 평균적으로 높은 정도의 탄력성을 보였어도 초등 1학년 시기에 아동들은 탄력성에서 다양한 수준을 보였다.

아동 탄력성의 변화율 평균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아동의 탄력성이 4년간 변화를 보였음을 의미한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탄력성은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등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동 탄력성은 아동의 어머니를 통해 측정하였고, 4학년 시기에는 아동들을 통해 측정하였음에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탄력성은 일관되게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는 동안 탄력성이 증가한다는 Block(1993)의 종단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며, 탄력성이 유아기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 계속 증가하며 발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Wick-Nelson과 Israel(199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되는 맥락이다. 이와 같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동들은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포함한 적응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탄력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4년 동안 아동 탄력성의 변화율의 변량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를 통해 아동 탄력성의 변화율에서 개인차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4년 동안 아동들의 탄력성의 변화 속도가 아동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가령, 어떤 아동들은 탄력성에서 더 가파르게 증가를 보일 수 있는 반면, 다른 아동들은 매우 완만하게 증가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초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아동들은 탄력

성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초등 4학년까지 탄력성이 증가되는 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탄력성의 초기값(1학년 탄력성 수치)과 변화속도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각 하위 영역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아동 탄력성의 초기값은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영역인 사교성, 사회참여도 및 인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초등 1학년 때 탄력성이 높을수록 초등 4학년 때 사회참여도가 높으며, 또래 및 성인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또래나 주위 성인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Garnezy(1981)의 연구와 그리고 탄력적인 아동은 사교적이라 성인이나 또래의 관심을 잘 이끌어낸다는 Werner(2006)의 연구와도 일치되는 맥락이다.

또한 1학년 때 탄력성은 4학년 때 아동의 주도성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아동의 자아 탄력성이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영역인 주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강수선(2014)의 연구와 일치되는 맥락이다. 이를 통해 초등 1학년 경 아동의 탄력성이 이후 4학년 시기 아동들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시도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이끌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학년 때 탄력성이 4학년 때 대인 적응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런 결과는 탄력적인 아동들이 친사회적이라는 연구(Murphy & Moriarty, 1976)와는 상반되는 부분이다. 대인 적응성이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협력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아마도 초등 4학년 시기가 아직까지

는 대인 관계에서 상호 협력적이고 또래를 도와주는 행동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나온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4년간 아동 탄력성의 변화속도(기울기)는 4학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영역 중 어떤 곳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4년 동안 탄력성을 빠르게 증가시킨 아동이나 더디게 증가시킨 아동이라도 그런 발달속도가 4학년 때 사회적 유능성 영역에는 아무런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현 연구에서 4년간 탄력성의 변화율(발달속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영역과 연계성을 보일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발달 단계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인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시점 이든지 또는 좀 더 장기적인 시점에서 탄력성의 발달속도와 사회적 유능성 영역 간 연계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현 연구는 초등 1학년부터 4학년에 이르기까지 4년간 학령기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발달적 변화에서 개인 간 뿐 아니라 개인 내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아동의 탄력성 관련 연구가 많이 있어도 탄력성에서의 발달적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어머니 탄력성이 아동 탄력성에 주는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초등학년 1학년 시기 아동 탄력성이 이후 4학년 때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영역인 사교성, 사회참여도, 인기도 그리고 주도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었다는 결과는 학령 초기의 적응이 이후

전반적인 학령기 적응을 예측한다는 연구 (Brody, Murry, Kim, & Brown, 2002; Ladd & Troop-Gordon, 2003)에서 진일보하여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특성으로 탄력성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연구는 좀 더 장기적으로 아동 탄력성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기 못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장기적 시점에서 아동 탄력성의 발달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상 아동뿐 아니라 역경이나 위협에 처한 아동 중 탄력적인 아동을 대상으로 탄력성에서의 발달적 변화를 함께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상 아동의 탄력성 변화와 역경 속에서 탄력성을 보이는 아동의 탄력성 변화 간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만약 차이를 보인다면 그런 차이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좀 더 장기적 시점에서 탄력성의 발달적 변화에 대한 탐색과 정상 아동 및 역경 속에서 탄력성을 보이는 아동 간 탄력성의 발달적 변화에서 차이 및 그런 차이에 기여하는 변인에 대한 탐색을 통해 탄력성에 대한 개념 및 이론 정립을 좀 더 공고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아울러 아동의 탄력성 증진을 위한 토대 마련에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수선 (201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양식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문정, 정윤경 (2012). 어머니의 완벽주의, 아동의 완벽주의와 목표지향성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9(3), 63-83.

김수정, 광금주 (2014). 아동기 기질의 발달적 변화가 지능발달에 주는 영향: 외향적 기질과 통제적 기질특성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3), 29-50.

도남희 (2009). 소년소녀 가장의 탄력성: 사회적 유능성과 주관적 안녕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주소영, 이양희 (2007). 아동용 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초등학교 4-6학년용. *아동학회지*, 28(2), 91-113.

한미현 (2005).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과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이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Block, J. (1993, March). *Ego-resilience through tim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ren development, New Orleans, LA.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Brody, G. H., Murry, V. M., Kim, S., & Brown, A. C. (2002). Longitudinal pathways to competenc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 among african American children living in rural single-parent households. *Child Development*, 73(5), 1505-1516.
- Brooks, R. (2006). The power of parenting. In S. Goldstein, & R. B. Brooks (Eds.),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pp. 297-314). Springer Science Business Media, Inc.
- Brooks, R., & Goldstein, S. (2001). *Raising resilient children: Fostering strength, hope and optimism in our children*. New York: Contemporary Books.
- Burt, K. B., Obradovic, J., Long, J. D., & Masten, A. S. (2008). The interplay of social competence and psychopathology overs 20 years: Testing transactional and cascade models. *Child Development*, Vol. 79(2), 359-374.
- Connor, K. M., & Davidson, J. R. T. (2003). Development of A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son Resilience Scale(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18, 76-82.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Dyer, J. G., & McGuinness, T. M. (1996).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5), 276-282.
- Garmezy, N. (1981). Children under stress: Perspectives on antecedents and correlates of vulnerability and resistance to pathology. In A. I. Ravin, J. Arnoff, A. M. Barclay, & R. A. Zuckers (Eds.), *Further explorations in personality* (pp. 196-269). New York: Wiley Interscience.
- Garmezy, N. (1991). Resilience in children's adaptation to negative life events and stressed environments. *Pediatric Annals*, 20, 459-466.
- Garmezy, N. (1993). Children at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1), 127-136.
- Garmezy, N., Masten, A. S., & Tellegan, A. (1984). The study of stress and competence in children: A building block f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Development*, 55(1), 97-111.
- Kaplan, H. B. (1999). Changes in emotional resilience: Gifted adolescent boys. *Roeper Review*, 13(4), 184-187.
- Katz, M., & McClellan, D. E. (1997).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teacher's role*.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Kim, S. H. (2005).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on young children's resilience. *The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25(4), 191-209.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76-1079.
- Kumpfer, K. L., & Alvarado, R. (2003). Family strengthening approaches for the prevention of youth problem behaviors, *American Psychologist*, 58(6/7), 457-465. [PMID: 12971192]. Other, 07/2003.
- Kupersmidt, J. B., & Coie, J. D. (1990).

-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Ladd, G. W., & Troop-Gordon, W. (2003). The role of chronic peer difficultie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Child Development*, 74(5), 1344-1367.
- Levenson, H. (1973). Perceived parental antecedents of internal, powerful others, and chance locus of control orien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9(2), 260-265.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The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 205-220.
- Masten, A. S., Hubbard, J. J., Gest, S. D., Tellegan, A. Garmezy, N., & Ramirez, M. (1999).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 143-169.
- Mitchell, J., & Annette, M. (1999). Links between mother'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associations with maternal adjust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8(2), 197-210.
- Murphy, L. B., & Moriarty, A. E. (1976). *Vulnerability, coping and growth: From infancy to adolesc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 Murray, C., & Greenberg, M. T. (2006). Examining the importance of social relationships and social contexts in the lives of children with high-incidence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9(4), 220-233.
- Parke, R. D., & Buriel, P. L. (1998). Socialization in the family: Ethnic and ecological perspective.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5th Ed.,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463-522). NY: Wiley.
- Parke, R. D., & Ladd, G. W. (1992).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Hillsdale, NJ: Erlbaum.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acceptance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Raver, C. C., & Zigler, E. F. (1997). Social competence: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363-385.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irt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Seligman, M. E. P. (1995). *The optimistic child*. Boston: Houghton Mifflin.
- Smith, E. J. (2006). The strength-based counseling model: A paradigm shift in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1), 13-79.
- Waters, E., & Sroufe, L. A. (1983). Social competence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 79-97.
- Werner, E. E. (1995). Resilience in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3, 81-85.
- Werner, E. E. (2006). What can we learn about resilience from large-scale longitudinal studies?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pp. 91-105) Springer Science Business Media, Inc.
- Wick-Nelson, R., & Israel, A. C. (1991). *Behavior disorder of childhood*(2nd Ed).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1 차원고접수 : 2016. 07. 09.
수정원고접수 : 2016. 08. 15.
최종게재결정 : 2016. 09. 02.

The Effects of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Resilience on Social Competence

Kim, Suchung

Kwak, Keumjoo

The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changes of children's resilience from first grade to fourth grade and the effects of these developmental changes on fourth grad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participants comprised about 300 pairs of seven year-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e resilience of children and their mothers were repeatedly measured for four years once every year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as measured at fourth grade. Latent growth modeling was used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changes of resilience and the effects of the developmental changes of resilience on fourth grad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were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resilience in the first grade. The rates of change in the four years of children's resilienc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differences in this rate of change were observed. Next, the children's resilience in the first grade positively influenced their social competence's subdivisions such as sociability, social participation, initiativeness and popularity in the fourth grade, but did not have an effect on interpersonal adjustment. The rates of change in children's resilience for four years did not have an effect on any of the subdivisions of social competence. This finding suggests that children's resilience in the first grade can help their social adjustment afterward.

Keywords: child's resilience, social competence, mother's resilience, latent growth modeling